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9차 정기회의록

일시 : 3/29(수) 13:30

장소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층 회의실

참석 인원 : 고경남, 김희자(부의장), 박정근, 배정학, 이종안, 전미희, 홍수만(의장) (7명)

위임 : 김경서, 김기민, 김정연, 김종환, 김태석, 유제훈, 이미경, 이선영, 최도용, 차정화, 황선영 (11명)

신규 회원 : 최해숙(길음1동 마을계획단 부단장), 홍봉기(정릉종합복지센터 지역조직팀 과장) (1명)

작성 : 전미희 (임시 간사)

• 성원 확인 (명)

재적	26	출석	7	위임	11
----	----	----	---	----	----

※ 현장 참석 및 위임 인원을 합쳐 총 19명으로, 과반을 넘겨 성원이 됨을 확인함

• 전차 회의록 낭독 및 승인 : 3/15(수) 8차 정기회의록 (붙임)

• 지역사회혁신과의 연계 관련

1) 예비 수립계획서 초안 관련

- 3월 20일 예비계획서 제출된 상태

2) 문제점

- 우리 협의회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민관TFT 명단과 사업 내용 제출

3) 지역혁신계획 진행 사항

- 3월 28일 서울시 현장실사 -> 조정 시기(유보) -> 향후 조정안을 서울시 제출

■ 민관 협치를 하면 1억원을 더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종안)

• 협치 예산 인센티브를 말씀하신 것 같다. 구청에서 조직한 민간 단위를 서울시가 인정하면 우리 협의회와는 상관없이 인센티브가 책정될 것이다. (홍수만)

■ 처음부터 구청의 들러리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다. 구청과 협의를 통해 협치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은 공무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없다고 본다. (박정근)

■ 지금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우리의 대안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문제제기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쉽지만 서울시가 우리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서울시는 구청이 정하는 민간 단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예비계획서에 우리 협의회와 상의도 없이 넣었다는 부분이다. (홍수만)

■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 (박정근)

■ 1차적으로 지난 월요일 구청에 들어가 은현기팀장에게 명단 삭제 및 예비 계획서에 협의회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오늘은 어느 선까지 문제제기

를 해야 할지 논의해야할 것 같다. 공문 발송 등의 방법을 강구하자. (홍수만)

- 서울시의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 같다. (이종안)
- 우리는 불리하다. 절차를 밟되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박정근)
- 임원진 회의에서 몇 가지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홍수만)

• 대응방안

1안) 협의회 유지하면서 대응

2안) 협의회 전환 (연구소 전환 등)

3안) 협의회 해산

4안) 구청의 예비 수립계획서 안에 따라 1/n로 참여한다.

- 공문처리를 해야 한다. 서울시장한테도 알리고 구청장한테 알리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공문에 넣어 항의해야 한다. (박정근)
- 서울시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해한다. (최해숙)
- 서울시 상황을 보고 그 후에 대응방안 마련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협의회 컨디션이 처음과 같지 않다. 마음이 많이 식었다. 협치성북의 단체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공론장 역할로의 역할로 남을 것인지 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김희자)
-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 활동했는지? 헛짓거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정근)
- 우리의 활동이 헛짓거리는 아닌 것 같다. 다만 구청과의 협력 차원에서 어그러진 것 뿐이다. 차근차근 문제를 풀기 위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전미희)
- 구청의 TFT 구성은 기존에 행정의 해왔던 방식대로 한 것이다. 민간주도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구청이 상의 없이 제출한 것은 이후에도 협치에 대한 구청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형태인 것 같다. 공문을 통한 문제 제기로만 그치지 말고 다양한 문제 제기 방식을 취해야 한다. 1)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2) 공론화하며 3) 언론보도 등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배정학)
- 김기민, 김희자, 홍수만, 송민기, 김종건 등 TFT의 명단에 올라간 것 미리 알았나? 명단 구성을 보니 구청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는지 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배정학님 말씀대로 다양한 형태로 문제 제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정근)
-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문제다. 서울시의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성북구한테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이종안)
- 대응과 맞물려 우리 단체의 형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고민해야한다. 지역혁신계획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끝은 아니다. 시민협력플랫폼사업을 통해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해도 된다.(홍수만)
- 시민협력플랫폼사업으로 간다하더라도 협의회에도 있고 구청에서 조직한 민관TFT에도 있는 회원들의 포지션을 명확히 정해야한다. (박정근)
- 구청에서 민관 TFT구성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잘못이라 생각되어 구청에 다시 전화해서 명단에서 빼달라고 했다. 지금 나도 무척 화가 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울시의 반응을 살핀 후, 그에 맞게 공문으로 문제 제기하고 다음 시간을 가지면서 침착하게 대응하자. (김희자)

- 관은 민/민을 의도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어찌 보면 협치에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문제제기와 대응방안은 분리하자. 재정비를 해서 갈 것인지 말건지. 성북구가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파악해야한다. (배정학)
 - 문제제기와 대응방안 분리에 동의한다. 문제제기는 문제제기대로 하면서 시민협력플랫폼사업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전미희)
 - 이렇게 구청의 들러리를 설 바엔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낫다. (박정근)
 - 민관협치라고 말하는데 중국에서 구청 마음대로 한다. 구청에서는 쉽게 일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성하는 것이 민관협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최해선)
 - 성북구의 대응방식에 대해 분노보다는 시민협력플랫폼을 이용하든 다른 방법을 이용하든 우리 스스로 성북구 내에서 장기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배정학)
 -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차분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자 (고경남)
 - 설립 총회를 앞당겨서 정식으로 출범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정식 출범도 하고 회원수도 늘리면서 협의회를 키워 나가자 (이종안)
 - 맞다. 총회를 미룬 것이 잘못이다. (박정근)
 - 구멍을 제대로 덮지 않고 넘어가면 또 다른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다. 아까 배정학님 말씀대로 천천히 가되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이슈파이팅은 방법론적으로 진행해야할 것 같다. (홍봉기)
 - 우리 협의회를 유지하려면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함께 마음을 맞추어 가자 원망이나 비난보다는 내부 정비를 해가면 제대로 같이 할 사람들끼리 같이 가야 한다. (김희자)
 - 문제제기 방식은 천천히 상황을 보고 하되 정확하게 문제 제기하는 방향으로 잡고 단체는 유지하며 총회를 앞당기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 서울시의 지역혁신계획 담당자와 논의하여 성북구의 지역혁신계획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겠다. 또, 그에 걸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다만, 지금 우리 협의회가 구청과의 대등한 관계의 파트너십을 맺을만한 상태인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름 구청도 우리를 기다려 준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구청의 싸이클과 우리의 싸이클이 맞지 않았던 것 같다. 더불어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그것을 담아낼 사업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관 구성에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것 같다.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구청의 행태에 대응하였으면 한다. 다음 회의 때는 설립 총회에 대해 논의 하겠다. (홍수만)
 - 다음 회의 땀 위임하는 분들 보다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맨날 보던 사람만 보게 된다. 더불어 구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협치 라는 말 대신 관치라는 단어를 쓰라고 전해 달라. (박정근)
 - 전달하겠다. (홍수만)
- 다음 일정
 - 일시 : 4월 12일(수) 13:30
 - 장소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층 (예약 필요)